

## 기혼자의 '결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싱글'과 대비한 '결혼' 인식 -

류경희\*<sup>1)</sup> · 왕석순\*\*

창원대학교\* · 전주대학교\*\*

---

## Qualitative study on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married people - In comparison with single life -

Ryu, Kyunghee\*<sup>1)</sup> · Wang, Seoksoo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married peopl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enty-two married men and wome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n the in-depth interviews are as follows.

1. Married men and women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in a marriage life, one must sacrifice something in order to get anything. That is, even though they have yearning for their lost days of single life and they miss those days, on the other hand, they think that, through marriage, they feel more stable with a sense of belonging to the family, and they are no longer feeling lonely.

2. Married people consider that marriage is something you really have to experience yourself before one knows what it is like to be married. That is, they consider that, while, being single is just like tasting only a little bit of the flavor of life, marriage is like tasting the true meaning of life. The true meanings of life that married people are trying to find are "the strength they get from their family and children", "the journey of finding one's true self through overcoming hardships of life", "the joy and comfort of living together as a family", and finally "the broader life experience and higher quality of life".

**Key words:** 기혼자(Married people), 결혼 인식(Perceptions of marriage),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

1) 교신저자: Ryu, Kyunghee, Sarim-Dong 9, Changwon-Si, Gyeongnam 641-773, Republic of Korea

Tel: 055-213-3542, Fax: 055-213-3540, E-mail: ryukh@changwon.ac.kr

2) 본 연구는 2008년 태평양 학술문화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결혼이 오래된 사회제도이긴 하지만 오늘날은 결혼을 생애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점점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개념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미혼여성 2명 중 1명은 결혼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여겼고, 또 미혼남녀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경향신문, 2010). 서울시가 조사한 2010년 서울 시민의 가족생활 통계에서도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63.3%로 2008년에 비해 4.7% 줄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는 응답은 33.3%로 5.1% 늘었다(한국경제, 2010). 과거, 결혼은 전 생애에 한번 있는 인륜지대사였기에 결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젊은 성인남녀는 더 이상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혼을 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결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이 아닌 달성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남순현, 2007).

또한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르기 힘든 사회가 되면서 결혼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옆집에 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등 가족의 개념 자체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연합뉴스, 2010).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우리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친인척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어 것으로 나타나 1촌 관계가 아니면 ‘가족’ 개념에서 밀려나 가족 개념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인 식구라는 개념으로 협소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1; 한국일보, 2011). 이처럼 현대인들은 결속과 유대의 욕구뿐만 아니라 개체성과 자율성의 욕구 또한 충족하길 원하고 있어 상호구속적인 결혼이나 혈연적 유대보다는 독신이나 동거, 혹은 결혼 후에도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혜영, 2008). 그러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결혼은 여전히 남녀가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전이 중의 하나이며,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언제 결혼할 것인가 등 결혼과 관련된 문제는 성인 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의 하나이자(유안진, 1999), 개인들이 일생동안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임에는(Surra & Hughes, 1997) 틀림없다.

결혼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많이 변화한 현 시점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특히 싱글과 대조되는 측면에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결혼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싱글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요즘 결혼과 싱글의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인식의 발견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싱글과 다르게 결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한 ‘결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양적조사와 같이 미리 규정된 반응의 범주에 맞추어 조사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들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통해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몇몇 연구(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송유재,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신효영, 방은령, 2007)가 있으며, 그 외에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결혼 생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김혜선, 이재림, 2004), 결혼 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 생활 적응의 의미를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연구(이지선, 천혜정, 2006) 등이 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들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은 미혼자들보다는 기혼자들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송유재 외, 1997). 미혼 및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을 조사한 신효영과 방은령(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결혼관은 미혼보다 기혼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기혼 남성들은 결혼 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욱 높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결혼관은 기혼보다 미혼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기혼 여성들은 결혼 후 결혼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이 높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5~64세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조사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28.5%, '하는 편이 좋다' 32.1%로 60.6%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2000년 26.2%에서 2003년 25.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27.9%, 2009년 28.5%로 증가양상을 보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비교적 약한 긍정적 태도는 2000년 29.4%에서 2003년 28.7%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29.8%에서 2009년 32.1%로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9).

이러한 실태조사 외에도 30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생활의 의미를 살펴본 김혜선과 이재립(2004)의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들은 결혼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 의식주의 변화, 원가족과의 관계 증진, 자녀출산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자유의 제한, 경제적 스트레스, 부양자 역할 및 가사노동의 부담감, 시가와의 관계 등 부정적인 변화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생활의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혼남성들은 도구적·정서적 필요에서, 기혼여성들은 자녀의 존재를 토대로 그래도 결혼은 안 하기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기혼 남녀에 따라 상당히 비슷한 결혼 생활의 득과 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결혼 생활 적응의 의미를 파악한 연구(이지선, 천혜정, 2006)에서는 결혼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현실을 알아 간다는 것이고, 결혼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 여우가 되어 가는 것, 내가 커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었다. 즉 결혼이 연애

와는 다르게 결혼생활에서 남편에게 돌봄을 더 구체적으로 행하고 집안 살림 및 시댁 식구들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현실을 알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결혼 초기 여성들이 대상이었지만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 생활 적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남편과의 생활습관이나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를 발견하며 결혼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는데, 이때 자신과 남편과의 다른 생각이나 요구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인정하게 되고 이를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이나 남편과의 갈등을 요령 있게 대처한다는 의미로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소 수동적이고 회피적이기까지 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였다. 또 결혼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어가며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와 부부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듬어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기혼자들의 결혼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기혼자들이 '싱글'의 삶과는 다른 선택인 '결혼'에 대해 어떤 주관적 의미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탐색할 수는 없었다. 결혼 생활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기혼자들의 싱글과 대비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결혼 기피와 저 출산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의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그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기혼자의 싱글과 대비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생활 교육적 차원에서 결혼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가치 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에서 20대에서 6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기혼자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각각 경상도 권과 전라도 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두 연구자의 출생지가 모두 서울·경기도여서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자들을 만나기가 용이하였다.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

라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다(이명숙, 2002).

정보제공자는 연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기 개방을 할 의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결혼과정 중에 사별이나 이혼, 별거를 하지 않았고, 현재 배우자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서 이혼이나 별거 위기 없이 평범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일반 가정의 기혼자로 한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제공자 특성

정보 제공자 <sup>2)</sup>	연령	성별	학 력	직 업	거주지	결혼지속 년수
조현미	33세	여	대졸	가정주부(회사원)	서울·경기도	2년
김영현	53세	남	대졸	정당인	서울·경기도	12년
박소현	55세	여	고졸	가정주부	서울·경기도	30년
배경덕	47세	남	대학원졸	무직(정치인)	서울·경기도	15년
손민자	44세	여	대졸	가정주부	서울·경기도	18년
한철호	27세	남	대졸	회사원	서울·경기도	2년
김경환	54세	남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24년
허민호	36세	남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8년
장미란	49세	여	대학원졸	교사	경상도	22년
홍진희	38세	여	대졸	회사원	경상도	11년
백순희	62세	여	중졸	가정주부	경상도	40년
한지환	45세	남	대졸	자영업	경상도	18년
유수민	45세	여	대졸	가정주부	경상도	18년
박윤애	28세	여	대졸	가정주부	전라도	2년
윤두준	45세	남	대학원졸	교수	전라도	18년
정소희	35세	여	대졸	음악학원운영	전라도	10년
안현호	65세	남	대학원졸	교수	전라도	30년
오초희	61세	여	대학원졸	교수	전라도	34년
김은진	43세	여	대학원졸	상담전문직	전라도	18년
김장렬	31세	남	대졸	교직원	전라도	2년
이성원	36세	남	대졸	교직원	전라도	5년
심규호	53세	남	대학원졸	교직원	전라도	25년

2) 정보제공자의 이름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음

심층면접은 연구자 2명이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2009년 3월 11에서 4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싱글로 있을 때와 결혼 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싱글 경험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결혼해서 보니 싱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결혼생활을 직접 해 보시니 어떠십니까?', '다시 싱글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싱글로 돌아가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등이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2명이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가상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별로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을 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되었다.

## 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양옥경,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장연집,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을 한글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하게 되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결혼의 양면-없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 결혼이라는 2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결혼의 양면-없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주제에서는 '결혼 후에 잃은 것들', '결혼 후에 얻은 것들'이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으며, '결혼 후에 잃은 것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잃어버린 나만의 세계', '그리고 아쉬운 싱글 시기'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고, '결혼 후에 얻은 것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결혼의 안정감', '소속감과 외롭지 않음'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 결혼'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싱글은 인생의 간만 보는 것이다',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다'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으며,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다'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과 자식의 힘', '인생 고비 뒤의 나를 찾아가는 길',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넓어지는 삶의 폭, 높아지는 삶의 질'이라는 4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이와 같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기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 낼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III. 연구결과

### 1. 결혼의 양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기대는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오히려 결혼 전의 싱글 시기를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하게 하기도 한다. 결혼의 삶에는 분명 얻음과 잃음이 있다. 그 얻음과 잃음은 결혼 전의 싱글의 삶과 대비하여 생각하게 된다. 인생에 양면이 있듯이 결혼에도 양면이 있다.

즉 싱글의 삶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결혼의 삶에서는 더 이상 누리기 어렵고, 반면 싱글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결혼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혼자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양면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후에 잃은 것들

(1) 잃어버린 '나만의 세계'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면 자기중심으로 살던 싱글 시기가와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자기중심으로 세우지 못하고 반드시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거려야 할 때,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가족을 고려하다 보니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는 가정이라는 구속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싱글 시기가 그렇다고 한다. 가족에 얽매어서 현실이 괴로워질 때는 이 현실을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싱글이었다면' 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든다.

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떨 때 제약이 될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배우고 싶은 거 아니면 다니고 싶은 거 뭐 외국을 한번 나간단 그래도 인제 결려서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중심으로 세우지 못하고 가족을 반드시 고려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럴 때는 좀 싱글이 편하지 않나 차라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허민호, 경상도 30대 기혼남성)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못 가진 것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은 있으니까 싱글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잖아요. 일단은 사회 윤리와 무관하게 내가 해보고 싶은걸 다 해볼 수 있는 조건의 사람과,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겠죠.(배경덕, 서울 경기도 40대 기혼남성)

한철호씨도 결혼 후에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만을 위해 자기 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고 한다. 즉 결혼 후에 가족이 생기면서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다보면 자기관리, 자기 계발과 같이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끔씩 싱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한다.

싱글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가끔은 들어요. 일하면서 좀 힘들고 좀 고생스럽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을 제가 해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회사라던가 이런 쪽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외국어 능력을 좀 키워라. 뭐 자기관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라. 그렇게 봤을 때는 싱글이던 나도 좀 더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자기계발 시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쬐은 싱글로 돌아가고 싶다. 그 부담감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싱글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한철호, 서울 경기도 20대 기혼남성)

안현호씨는 결혼 전 싱글 시기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표현할 정도로 결혼 후에 자신만의 세계를 잃었다고 이야기한다. 결혼을 하기 전 싱글이었던 시기는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혼자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인생에서 오래 간직하고 싶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소중한 아름다운 나만의 세계를 상대방과 공유해야하고, 또 심지어 빼앗기는 것이기에 그만큼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결혼 전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던 생활에서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결혼 전만큼 자유롭게 자신의 이상과 꿈만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말해서 그 잃어버린 낙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싱글이었던) 그 당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추억으로,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시기였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혼자 살면서 그 자유분방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누리고 싶다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마찬가지로이지만 혼자 살았을 때의 어떤 그런 순수한 생각, 그리고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누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삶의 장벽을 높이 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세계 속에서 혼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그 시기에선 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결혼을 해서 함께 한다고 할 때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부터는 나의 소중한 것을 공유 내지,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순수성을 잃어갔다고 보는 거죠.(안현호, 전라도 60대 남성)

한편, 기혼 여성인 김은진씨, 박운애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나 이외의 가족을 챙겨야 하기에 나 위주의 삶을 살기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결혼의 삶을 통해서 생겨난 시대, 친정과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세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챙겨야 할 게 많았어요. 싱글일 때는 나 혼자만 챙기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챙겨야지, 시며만 챙기면 또 친정이 저기니까 친정 챙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들이 많아지고, 일단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일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게 있어요. 전에 미스 때는 그냥 저녁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친구 만나서 그냥 놀고 듣고 싶은 학원 등록해서 시간 빠듯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는 것 같고, 가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김은진, 전라도 40대 기혼 여성)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얘기가 생기면서 애기한테 매달려야 하고 싱글여성들은 자기 위주로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와 남편 위주로 생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싱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어요.(박운애, 전라도 20대 기혼여성)

자신만의 세계를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자신보다 다른 가족

을 먼저 챙겨야 하는 기혼 여성들은 결혼의 삶에서 가족으로부터의 구속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결혼을 하기 전 싱글 시절은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로움이 있고, 결혼 후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지만 구속감이 있다. 싱글 시절이든 결혼 생활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싱글의 자유로움과 결혼의 행복함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어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시기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과는 다른 반대의 삶에 대해서 동경과 지나친 환상을 갖게 되기도 한다. 즉 막상 싱글로 돌아가면 지금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은 모든 것을 다 해 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나만의 세계가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싱글 때 굉장히 자유롭게 즐겁게 살기는 했는데 조금 외로웠어요. 음 결혼 후에는 일단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조금 귀찮고 좋기도 하면서 조금 힘든 면도 있고 결혼해서 보니까 싱글시절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좋았던 거 같아요. 싱글 시절에는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생활은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속박이 있는 거죠. 일단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가 생기면서부터 인제 거의 나의 모든 일이 개한테 다 맞춰 지니까 뭐 행복한 속박이긴 하지만 그것도 속박은 속박이죠.(손민자, 서울 경기도 40대 기혼여성)

요새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조금 생각해요. 지금 남편이 인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트러블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경제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인제 사업 갖 시작을 했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대화가 일단 잘 안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바쁘니까 아이들한테도 좀 소홀해져서 나만 아이를 다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시댁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제가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 남편은 항상 뒷전에서 니가 알아서 잘하겠지 널 믿어! 그런 부분...때문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요. 또 혼자 사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개가 좀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데 자유분방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런 부분 너무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죠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여행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보지 못하고 가게 되도 남편이랑 가족들 같이 가야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홍진희, 경상도 30대 기혼여성)

제가 싱글 이었을 때 시간이 많게 느껴지고 그리고 모든 시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니까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싱글 이었을 때는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어떤 많은 것들을 수반하는 그런 걸 요하는 일이어도 할 수 있다. 과감히 그냥 할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라고 부모님한테 그냥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것을 못 누린다는... (중략) 싱글이었을 때 정말 좋은 점은 여행가고 싶을 때 또 어디 가고 싶을 때 하루며 전시회를 한번 가고 싶거나 음악회를 가고 싶거나 이런 어떤 예술적인 욕구가 있을 때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하고 싶단 생각조차 힘들어요.(조현미, 서울경기도 30대 기혼여성)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면서 나만의 세계에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세계로 경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중심의 인생계획은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자신의 꿈과 이상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가족의 삶과 조화를 이루도록 꿈과 이상도 변화시켜야 한다. 결혼을 해서 나만의 세계를 조금 접어두고 다른 가족과 함께 조율해야 하는 세계를 만나 적응하는 과정에는 결혼 후의 삶이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져서 싱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2) 그림고 아쉬운 싱글 시기

결혼하기 전 싱글 시기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기혼자들은 싱글 시기를 충분히 갖고 나서 결혼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결혼하기 전에 보내게 되는 싱글 시기에는 결혼 후에 누리지 못하는 싱글만의 자유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혼자만의 편안함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지나가버리고 나서야 그 시기가 다시는 돌

아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 시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아쉬움을 갖게 된다.

저의 싱글 시기는 거의 없었다고 보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하기 바빠가 한 1~2년 있을 때 결혼 했으니까. 그녀가 싱글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결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음... 결혼을 20대 후반에 하지마라. 좀 천천히 해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즐기면서 30대에 해도 늦지 않으니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장미란, 경상도 40대 기혼여성)

결혼생활 중에 싱글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 많지요. 원래는 싱글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일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뭐 예를 들면 생각의 차이가 제일 크죠 어떤 일이 하나 생겼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쉬우면 괜찮은데 그 과정이 길게 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꼭 부부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 반복해서 겪다보니까 그럴 땐 좀 내가 좀 더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했으면 철이 더 들고 나서 했으면 내가 어떤 땐 좀 더 양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허민호, 경상도 30대 기혼남성)

홍진희씨는 싱글시기에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 드려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직장생활에 충실했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힘든 싱글 시기를 벗어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싱글 시기보다도 자신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자 더 싱글 시기가 아쉬워짐을 경험한다. 싱글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당시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싱글로 있어봤지요 그때는 제가 또 가정형편이 여의치



가 많아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대에 어긋날 수 없어서 그냥 쪽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회사생활을 좀 해 주고 너라도 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은 톨루랄라 할 때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웠고 어 그런 한은 있어요. 싱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거 다해보고 싶은데요. (중략)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솔직히 일찍 하고 싶었어요.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미스 때 못해 봤던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더 힘들면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었어요. 그 앞전에는 제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고 남편이 되게 성실하고 아이들이 또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 시댁과의 갈등은 조금 있지만 그런 거야 뭐 감수를 조금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시댁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주다 보니까 남편하고 트러블이 조금 생기고... 그래서 싱글,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홍진희, 경상도 30대 기혼여성)

기혼자들은 싱글로 있었던 시기에 결혼하면 누릴 수 없는 것을 그 당시에 충분히 누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기도 어렵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럴 거였다면 그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싱글 시기를 충분히 누리고 결혼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 미팅 같은 것도 한 번도 못해봤어요. 축제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가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되는 것은 사실은 대인관계도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이랑 사귀면서...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건 데 좀 싱글로 살면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는 그렇다고 싱글로 살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떤 꿈을 펼치고 일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유수민, 경

상도 40대 기혼 여성)

정소희씨는 싱글 시기에 더 많은 이성과의 교제를 해 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싱글 시기에 더 많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이성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싱글 시기에 한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하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남자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은데 결혼 전 싱글로 있었던 시기에 더 많은 남성과의 교제가 있었다면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이성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

지나고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성친구들 하고도 더 많이 놀고 활기차게 보냈어야 되는데 너무 진부하게 보내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스무 살 딱 초반이 되서 친구들하고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딱 고 시절부터 남편하고 사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모든 만족을 남편한테서 다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친구들 모임도 한창 많이 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도 제가 잘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좀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싱글시기에 이성친구들과도 만남을 좀 더 가졌더라면 더 남자라는 그 성격을 파악하고 비교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래요. 결혼해서도 지금도 후회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남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남자가 좀 더 남자다운건지 또 바른 건지 좀 그런 것이 지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걸 좀 못 느꼈거든요. 그니까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 그릇의 차이라든가 남자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기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았더라면 저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좀 제대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정소희, 전라도 30대 기혼 여성)

기혼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싱글 시기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결혼을 하였거나, 어느 정도 싱글 시기를 경험하였다 하여도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

하였을 때 결혼 하고 나서야 싱글로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을 더 잘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싱글 시기는 결혼 생활에 비해 자유롭고 편안하며, 자신에 대해 투자하며 살 수 있고,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하기에 기혼자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싱글 시기가 그립고 아쉬울 뿐이다. 기혼자들에게 싱글 시기는 결혼을 통해 잃어버린 시기인 것이다.

2) 결혼 후에 얻은 것들

(1) 결혼의 안정감

조현미씨는 결혼하기 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싱글이었기 때문에 일 관계로 만나는 남성들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한다. 싱글이었던 자신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싱글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공격적인 일을 떠나서 원하지 않는 사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싱글 시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직장 일을 하는 싱글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많은 남성들과도 공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주변의 남성들이 싱글 여성을 과도한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싱글 여성으로서의 불편한 경험은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만큼 결혼을 통한 남편이라는 울타리는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는 이성과의 접촉을 차단시켜 주기도 하고, 남자들이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었던 결혼 전 싱글 시절은 무언가 안정감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들었으며 결혼 후에 생각해 보니 안 해도 될 고생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제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뭐 싱글로 있으면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자꾸 이상한 흐름으로 간다거나 그니까 뭐 일을 하다보면 남자들 하고도 이상하고도 일을 할 때가 많고 그런데 인제 그제 뭐 남자들은 그 마음속에 대부분은 일보다는 다른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인제 모르는 척 하고 지나 왔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 100% 깨끗하게 배제할 수 없더라고요 뭐 쓸데없이 차를 마시자고 한다거나.. 일할 때 사적인 얘기를 자주한다거나, 왜 결혼 안 했냐고 자꾸 캐묻는다거나 내지는 결혼 했다고 하면 결혼했는데 왜 혼자 이려고 있다고 캐묻는다거나 뭐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서 이제 다른 식으로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저도 외로우면 흔들리기도 하고 사실 솔직히 약간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얽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신하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안 좋은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고생들.. 아직까지는 여자가 나무토막이 아닌 이상은 남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요새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도 그러는데 없을 땐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여자가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거 감수해야지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고생이었구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조현미, 서울경기도 30대 기혼여성)

이성원씨도 결혼 전과 후가 다른 큰 차이점은 안정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어가고 배우자의 챙김을 받는 가운데 안정감을 찾는다고 하며, 나를 기다려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옆에 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오초희씨도 결혼하면서 남편이 많은 의지가 되었고, 살면서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삶이 좀 규칙적이고, 제 때 밥도 좀 먹고, 그 다음 제 때 운동할 수 있고, 제 때 좀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남자들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돌아가면 누군가 집에서 나를 맞이해 줄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늘 생각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이성원, 전라도 30대 후반 기혼 남성)

결혼을 하면은 우선은 안정감이 있고요. 또 바로 얘기도 생각하고 하니깐 얘기도 예쁘고 결혼생활의 큰 장점은 안정감이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으면 상당히 두렵고 무서울 것 같고.. 결혼

하니 의지가 되요. 남편이. 의지가 되고 그래서 그 누구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것 보다.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학교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다녀가지고 전에는 혼자도 씩씩하게 잘 다녔는데 결혼한 후에는 어디를 혼자 가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좀. 늘 같이 다녀 버릇을 해가지고.(오초희, 전라도 60대 기혼여성)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울타리가 생긴다고 인식하고 있다. 배우자라는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결혼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결혼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친밀한 가족관계를 통해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어 가고, 서로 의지하면서 싱글이었을 때 경험하지 못한 심리적 안정감을 맛보는 것이다.

(2) 소속감과 외롭지 않음

기혼자들은 결혼하면서 소속감을 얻고, 외롭지 않아 좋다고 한다. 오초희씨는 싱글 시기에 가족끼리의 문화에서 자신은 배제된다는 느낌에 힘들었다고 한다. 결혼 전 혼자 지내면서 외롭기도 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결혼을 한 지금은 싱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김은진씨도 지금은 남편과 아이가 있어서 매우 바쁘게 살지만 이런 가족이 없으면 삶이 매우 외로울 것이라 여긴다. 남편은 미래 노후에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보험으로 비유하면서 외로움 싱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송희열씨도 싱글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외롭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배우자 외에도 자식들이 결혼의 삶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외롭지 않다는 거라고 인식한다.

싱글로 있을 때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단체에 어디에 속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어디 소풍을 간다거나 또 수련회를 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하고 많이 어울리고 또 애기들이랑 해서 가족들이랑 어울리는데 나는 혼자 가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후회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싱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다른 가족 팀에 쫓길 수도 없고 어디 소속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다 끼리끼리 가니까 나는 혼자서 떨어져서 가야 되고, 아니면 이제 나보다 저 밑에 후배 들하고 어울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오초희, 전라도 60대 기혼여성)

싱글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혼자 살면 가장 안 좋은 게 외로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시간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나에게 아이가 없거나 그런 거를 상상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 굉장하 뿌듯하고, 너무 마음이 좋거든요. 또 남편이 내 미래의 그 보험인데 없으면 안돼요. 하하하. 남편은 이제 노후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게 싱글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김은진 전라도 40대 기혼 여성)

저는 싱글 같이 그런 자유를 좋아하고 사는 것은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혼의 가장 큰 강점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대낌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또 강점이라는...(송희열 전라도 50대 남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고 있으며, 싱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 적령기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족끼리의 문화는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을 잊게 해 줄 것이다. 기혼자들이 싱글 시기에 경험하였던 가족끼리의 문화에서 배제되는 느낌과 외로움 등은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일지 모른다.

2.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 결혼

1) 싱글은 인생의 '간'만 보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안 해 보면 그 세계를 모른다고 말한

다. 결혼하기 전에는 주변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결혼생활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자신이 직접 결혼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주관적으로 경험해 보는 결혼의 세계는 경험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만으로 판단하였던 것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직장이든 취미든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방향으로 잘 가는 것도 좋은데 그게 힘든 사람은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더 늦어서 하기 전에. 그런데 배우자를 찾다 못 찾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결혼을 안 해 본 사람은 그 세계를 모른다잖아요.(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심규호, 전라도 50대 남성)

조현미씨는 싱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인생길이 두려워 피해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인생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결혼이라는 인생길도 과감히 밟아 보아야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싱글로 있는 것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만 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제가 싱글 친구나 후배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싱글은 인생의 간만 보는 거야 간만... 이렇게 표현해요. 싱글이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갈 때 까지 가봐야 하는 곳까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사명감이라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싱글로 있는 거는 인생을 피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어진다든 하는 그만큼 내가 자꾸 인생을 돌아간다. 돌아가려고 한다. 왜냐면 힘든 것을 안 겪으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 그게 팽배해 있는 게 아닐까...(조현미, 서울경기도 30대 기혼여성)

김경환씨는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것은 인생의 반 정도만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 전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후회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고 후회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싱글로 살면 가족의 어떤 대가 끊어진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아무래도 그 싱글 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활이 생을 마칠 때까지는 아마 반 정도 밖에 살지 않는거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뭐 결혼을 해도 하질 않아도 뭐 다들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결혼해서 후회하라는 게 그게 제 지론입니다.(김경환, 경상도 50대 기혼남성)

기혼자들은 결혼을 경험하면서 결혼생활이 싱글 생활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다. 기혼자들은 싱글들이 결혼 후에 펼쳐지는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 없고, 인생의 반 밖에 살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나 결혼이라는 인생길이 두려워 피해가려는 싱글들을 볼 때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면 싱글의 삶으로는 인생의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2)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싱글 시기에는 맛보지 못한 인생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 즉 ‘가족과 자식의 힘’, ‘인생 고비 뒤의 나를 찾아가는 길’,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넓어지는 삶의 폭·높아지는 삶의 질’이라는 인생의 ‘맛’을 경험한다.

### (1) 가족과 자식의 힘

한지환씨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도 가족 간에 함께 함으로써 힘을 얻어 극복해 나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영현씨도 싱글의 삶은 결혼의 삶과는 달리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충분하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족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족에 두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싱글보다야 같이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더라도 같이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그 서로 의지하고 쏘끔 더 자기 자신만의 자유가 뭐 없지더라도 가족하고 뭐 같이 누리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크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족들한테 힘을 얻어가지고 그 덕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면은 더욱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한지환, 경상도 40대 기혼남)

싱글이었을 땐 자유로우니까 많은 이성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도전도 해 볼 수도 있고 여행도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랬었지만 결국 가족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가족, 가정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김영현, 서울 경기도 50대 기혼 남성)

박소현씨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가족이 있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한다. 싱글의 삶도 행복할 수 있지만,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기에 내면으로는 진정 행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싱글은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결혼을 한 사람들은 가족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산다면 모르겠지만 살다보면 항상 좋은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있음으로서 힘이 돼 주고 어떤 행복한 삶을 또 누리다가도 슬럼프에 빠진다면 하더라도 가족이 있으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혼자라면 아무리 골드미스가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어도취 되어 행복하게 살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살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할지 아무리 골드미스라 하더라도 질병이 찾아올 수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골드미스의 삶이 외적으로 보면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그 외적인 겉모양만큼이나 마음도 화려하고 행복할지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보여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주위에서 봅니다. 싱글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혼여성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보통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준략) 삶에 대한 태도는.. 어쨌면 기혼 여성들이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만약에 내가 가족이 없다면 쉽게 더 포기하고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박소현, 서울 경기도 50대 기혼여성)

또한 기혼자들은 가족 안에서 자식의 힘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백순희씨는 살면서 느끼는 자식의 힘은 이 세상의 힘을 준다고 해도 안 생기는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윤두준씨도 싱글은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기혼은 결혼을 통해 생성되는 가족 속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식을 낳아 길러보는 경험은 하나의 발달과업이자 사회적 책임이며, 이러한 경험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왜냐면엔 사람엔 아무리 부모가 좋아, 이웃이 좋아도 내 가족 내 짝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물려 줄 수 있는 능력은 자식밖에 없거든요. 뭐.. 내가 가령 애가 그렇게 인자 속상해 하면은 자식 말을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라 경험담 같은 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식인니까 하지 남한테는 해도 남이 남니까 그치예, 자식은 꼭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한 마디로 가족이 있어야 되에.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있어야 되고 못 낳으면은 입양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낳아야 되고 자식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예. 그 힘은 뭐 이 세상을 받을 준대도 안 생기는 힘 입니다. 그 힘은 안 겪어 본 사람은 몰라예.(백순희, 경상도 60대 기혼여성)

싱글은 자기 속에서 자기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기혼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슬픔도 누릴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횟수도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삶에서 아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가지가 많을 수록 열매가 많이 맺게 돼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한 이 유 중에 자녀 영향이 있겠죠. 뭔가 인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양육을 해본다는 거, 길러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윤두준, 전라도 40대 기혼남성)

기혼자들은 인생에서 가족과 자식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산다. 혼자일 때는 자신의 삶만이 전부일 수 있지만, 기혼자들에게는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과 자녀가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이자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가족과 자식을 생각하며 버티어 내고 이겨 낼 힘을 얻는다. 가족과 자식의 힘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인생 고비 뒤의 나를 찾아가는 길

결혼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김장렬씨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보다는 다른 가족을 배려하며 가족위주의 삶을 살게 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주고 배려해주어야 하기에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결혼의 과정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스스로 변화해 나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싱글로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결혼한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다른 거는 책임감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쉬운 예는, 뭐 일 끝나고 제 삶을 산다기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집에 가야 되고, 또 가정 일을 해야 되고, 싱글 때는 주말도 저 자신을 위해 썼지만, 지금은 와이프와

보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책임감 면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살아가야 되니까 저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들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요.(김장렬, 전라도 30대 초반 기혼남자)

또한 정소희씨는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결혼생활에서의 힘든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못 느꼈던 건데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어떤 만족도 면에서 조금 실망스럽고 이런 걸 느끼게 되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결혼생활 유지하고 살면서 수도 없이 싸우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에는 제가 뭐를 원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또 나한테 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결혼 당시에는 사실 몰랐던 거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했었다면 좀 더 결혼 생활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중략) 그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잘 몰랐던 거 같고 또 이렇게 사회라는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거에 제가 둔감했었는데 그것을 제가 결혼을 해서 몸으로 부딪히고 피부로 느끼면서 인제 그 빠르게 이렇게 인제 깨닫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계속 사기가 좋기만 하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건데 그 짧은 권태기가 좀 왔었어요. 한 2~3년 전에 되게 힘든 서로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제 많은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죠.(정소희, 전라도 30대 기혼여성)

김영현씨도 혼자였던 싱글시기의 자유로움이 결혼을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다보니, 자유와 결혼에서의 책임을 맞바꾸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가족으로부터의 구속이 답답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해가기 까지 부부사이의 갈등도 경험하였고, 그러한 힘든 경

힘을 한 후에 서로가 익숙해지고 상대방에 대해 인정할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싱글일 땐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의욕적이고 젊은 때니까 꿈도 많았고, 싱글 일 때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목표를 저는 이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싱글을 지나서 결혼을 하고나서 한 일 년, 이 년까지는 즐겁고 그런대로 재미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어~ 싱글 때에 그 자유롭고 내 시간을 가졌던 혼자만의 시간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구속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답답해지죠. 답답한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내 자유와 결혼에서의 책임과 이제 맞아꾸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싱글 때보다는 새로운 내 생활을 만들어야 되고 리듬을 만들어야 되고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그때까지가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편안해요 인정하니까 어~ 저 사람의 패턴은 이런 거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고 습관은 어떤 거고 뭐 서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한 3년, 4년 지나니까 싱글로 있을 때 보다는 저는 결혼한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김영현, 서울 경기도 50대 기혼 남성)

이와 같이 결혼 생활은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다. 결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장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는 결혼 전에 맺었던 인간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름을 비로소 알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 서로 다른 배경의 두 가족이라는 집안끼리의 만남을 통해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역할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에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변화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즉 결혼생활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 (3)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김경환씨는 결혼을 통해 둘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아 가는 경험이라고 한다. 싱글로의 삶보다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삶이 더 단

단하고 멋진 삶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생활은 내가 모르는 성, 내가 모르는 면들을 내가 다 보고 생활 할 수 있는 요런 경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싱글인 경우는 여성은 남성을 모를 거고, 남성은 여성을 모르고 산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살아 나가면서... 제가 나이는 조금 아니지만은 주례를 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가지고 나무, 식물에도 처음에는 두 그루가 태어났다가 그 한 그루로 뭉치는 나무가 있듯이 사람도 뭐 아마 두 쪽이 같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 더 단단하고 더 멋진 생활이 많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김경환, 경상도 50대 기혼남성)

심규호씨는 결혼을 등산에 비유하여 이야기한다. 혼자서 등산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유롭게 산의 경치도 마음껏 즐기며 갈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재미는 없다. 반면에 함께 등산을 할 때는 자기가 좋은 싫든지 간에 그 약속에 맞추어 같은 흐름으로 가야 하고,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 혼자서만큼 자유롭게 산의 경치를 깊이 관망하기 어렵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야 하지만, 혼자서 산에 오를 때와는 달리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 결혼은 함께 등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대로 하지 못하는 구속은 있지만, 싱글 생활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가족 간에 함께 하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사실 등산을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아 오늘 가야지 하고 떠나면 되요. 근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가기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저기에 막 맞춰서 가야 되니까 구속이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럿이 가면 떠들고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산을 즐기고 산의 경치를 본다. 이런 거는 또 많은 제약이 받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더 빨리 가고 싶든지 천천히 가고 싶든지 하는 그 조절을 못해요. 같이 흐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럿이 가게 되면 신나고 재밌는 것이 있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더 그거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는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는 부분은 자유스럽지만, 또 어떻게 외로움처럼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은, 또 나

름대로 자기 페이스 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두울 때까지 저 산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후레시 하나 들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명 가면 정해진 시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혼자 가는 것은 코스 막 바꿀 수가 있는 자유스러움이 있는데 여럿이 가면은 자유스러움이 없는 대신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음식을 가끔 먹기도 하면서 떠들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심규호, 전라도 50대 남자)

김영현씨는 8년간 기러기 아빠였던 경험이 있다. 막 기러기 아빠가 되었을 때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싱글시기에 누렸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게 인식되었다고 한다. 함께 사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하는 데서 오는 편안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기러기 아빠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과 편안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 마누라랑 8년 떨어져 살았거든요. 꼬맹이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런데 막 떠나고 한 석 달은 좋았어요. 정말로 석 달은 좋았어요. 어쨌든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막 친구만나고 늦게까지 놀아도 뭐 그럴 사람 알고 어쨌든 자유를 한번 누리봤었는데 3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자유보다는 그 불편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게, 남자 혼자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자기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뭐 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김영현, 서울 경기도 50대 기혼 남성)

기혼자들은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결혼 후에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인식하게 된다. 결혼 후 당장은 자유 대신 경험하는 구속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싱글의 삶에서는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편안함은 싱글 삶에서의 자유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 (4) 넓어지는 삶의 폭, 높아지는 삶의 질

이성원씨는 결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때로는 상처를 주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결혼 후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사랑도 깊어지고, 싱글로 있을 땐 발휘하지 못하던 자신의 역량도 발휘할 수 있어서 결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나를 사랑해 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가정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결혼 후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인식한다.

결혼에서의 강점은 일단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산다는 거는 너무나 큰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의 너무나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상처 줄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상처 없이 나는 무조건 싱글로 가겠다는 것 보다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싱글로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역량을 발휘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가정에선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후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결혼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하단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내 삶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느껴지고, 더 아껴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의 삶이 나의 삶의 질도 높여준 것 같아요.(이성원, 전라도 30대 후반 기혼 남성)

윤두준씨는 싱글로 살기 보다는 결혼은 꼭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설령 이혼을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경험은 인생에서 꼭 해보아야 하는 경험이고 인간으로서의 책무라고까지 인식한다. 싱글의 삶은 경험의 폭이 작고 이해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결혼을 통해서 다



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배워나가면서 경험의 폭,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싱글로 다양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무척 안타깝게 여겨지고, 인간으로 태어나 결혼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희로애락을 깊게 맛보며 인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싱글 속에서 자기 삶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싱글로 살고 싶으면 결혼이라도 한 번 해보고 싱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한 번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애라도 한번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제 사회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책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인제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한다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배워가는 건데 혼자 살다 보면 그 경험의 폭도 작고 이해의 폭도 작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삶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윤두준, 경상도 50대 기혼남성)

기혼자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결혼의 삶에서 힘들과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결국은 결혼의 삶이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가족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 또한 결혼 후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경험을 통해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도 하게 된다.

## V. 결론 및 논의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의 양면-없는 것이 있

으면 얻는 것이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 결혼이라는 2개의 대주제를 찾게 되었다. '결혼의 양면-없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라는 주제에서는 '결혼 후에 잃은 것들', '결혼 후에 얻은 것들'이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으며, '결혼 후에 잃은 것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잃어버린 나만의 세계', '그립고 아쉬운 싱글 시기'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고, '결혼 후에 얻은 것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결혼의 안정감', '소속감과 외롭지 않음'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 결혼'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싱글은 인생의 간만 보는 것이다',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다'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으며,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다'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과 자식의 힘', '인생 고비 뒤의 나를 찾아가는 길',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넓어지는 삶의 폭, 높아지는 삶의 질'이라는 4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기혼자들은 인생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이 함께 존재하듯이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양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 즉 자유로웠던 싱글 시기에는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었다면, 결혼을 하게 되면서는 자신의 삶을 배우자, 자녀와 함께 공유하면서 가족생활을 해 나가야 하고, 자신보다는 더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싱글에서는 맛 볼 수 없는 결혼의 안정감과 소속감이 있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선택한 기혼자들은 결혼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의 특권이 있었던 싱글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싱글의 삶에서는 알 수 없는 결혼의 삶에서의 '맛'을 나름대로 찾아나가고 있다. 즉 결혼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가족과 자식이 있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한다. 나와 배우자가 만나 자녀를 낳고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이 원만하게 형성,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맞추고 배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힘든 고비들을 잘 넘겨가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맛보게 되고 삶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혼자들은 결혼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삶의 귀결로 맺듭 지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생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나가고 더 나아가 희망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몇 가지 함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들은 인생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양면이 함께 존재하듯이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양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 삶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있기 마련이다. 모두 다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결혼 제도 안에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도 밖의 자유를 동경하고, 아직 싱글로 결혼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고 외롭지 않기 위해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희망할지도 모른다.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결혼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결해야 할 선택의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에는 얻음과 잃음이라는 두 개의 저울이 양쪽을 저울질하며 최종선택을 결정지을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결혼을 선택한 기혼자들은 결혼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의 특권이 있었던 싱글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싱글의 삶에서는 알 수 없는 결혼의 삶에서의 '맛'을 나름대로 찾아나가고 있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맛'은 어떻게 보면 결혼 후의 배우자와 가족 상호간의 노력, 끊임없는 자기 노력 등을 통해 얻어지는 생성물일 수 있다. 결혼의 '맛'을 귀결 짓는 그 과정에는 결혼의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분명 존재하지만 결혼의 쓴맛도 결국은 긍정적인 맛으로 귀결 지어감을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인생의 힘들과 어려움을 가족 간에 함께 함으로써 힘을 얻어 극복해나갈 때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히 인식하게 된다. 인생의 힘들과 고단함을 가족의 힘으로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힘 중에서도 자식의 힘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의 삶에서 생겨난 자식을 통해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삶은 싱글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자 가치로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혼자들은 결혼의 삶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위주로 살 수 없고,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위주의 삶에서 가족 위주의 변화된 삶을 통해 기존의 자신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많은 인내와 노력을 수반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결혼의 참 '맛'도 얻을 수 없음을 기혼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셋째, 기혼이든 싱글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혼자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까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많은 기혼자들이 자신의 결혼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스스로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결혼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삶의 귀결로 맺듭 지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생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나가고 더 나아가 희망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0). 미혼 여성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10월 26일자.  
 김승권,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선, 이재림 (2004). 30대 중후반 기혼 남녀의 배우자선택과 결혼생활의 의미. *가족과 문화*, 16(2), 3-54.

- 김혜영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 여성연구*, 47(2), 7-37.
- 남순현 (2007).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27.
- 송유재, 정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연구논집*, 32, 49-92.
- 세계일보 (2011). 가족이 멀어져 가는 세태. 1월 27일자.
- 신효영, 방은령 (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494-495.
- 양옥경 (2000). 한국 가족 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69-99.
- 연합뉴스 (2010). 조한혜정 교수 “결혼 제도 유지되기 어렵다”. 11월 11일자.
- 유안진 (1999). *아동발달의 이해*. 문음사.
- 이명숙 (2002). 심층면접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18(1), 215-241.
- 이지선, 천혜정 (2006). 결혼 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 생활 적응의 의미. *대한가정학회지*, 44(7), 41-52.
- 장연집 (2000). 건강을 위한 심리학과 현상학적 질적 연구. *질적연구*, 1, 13-24.
- 한국경제 (2010). 서울 시민 33%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12월 13일자.
- 한국일보 (2011). 시부모·장인·장모는 우리 가족 아니다. 1월 24일자.
- Surra. C. A. & Hughes. D. K. (1997). Commitment processes in accounts of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5-21.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 2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기혼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혼자들은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양면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결혼을 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고, 자유로웠던 싱글 시기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지만, 반면에 결혼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게 되었고 외롭지 않다고 한다.
2. 기혼자들은 결혼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라고 인식한다. 싱글은 인생의 간만 보는 것이라면 결혼은 인생의 맛을 보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기혼자들이 결혼의 삶에서 찾아나가는 '맛'은 '가족과 자식의 힘', '인생 고비 뒤의 나를 찾아가는 길',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넓어지는 삶의 폭, 높아지는 삶의 질'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3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3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4월 9일